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문화기관과 지역의 미술관 등이 협력해 진행된다. 이스라엘 문화 단체 'CDA Holon'의 작업을 만날 수 있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 곳곳, 비엔날레 미술 현장이 되다

‘올해 비엔날레는 광주 전역이 전시관.’

세계적인 미술축제 베니스비엔날레 전시는 크게 두 곳에서 진행된다. 아르세날레 전시장에서는 비엔날레 총감독이 기획한 ‘본전시’가 열리고 자르다니 공원에서 58개국이 꾸미는 ‘국가관’을 만날 수 있다. 각 나라가 전시 역량을 발휘하는 국가관은 다양한 주제의 전시로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비엔날레가 도시 전체의 축제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재)광주비엔날레가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국가관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된다. 참여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전시장소를 정하고 전시컨셉을 기획해 자국의 아티스트와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첫해에는 필리핀 등 3개국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스위스와 대만이 전시를 진행했다.

오는 4월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저기’(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4월7일~7월9일)에는 모두 9개의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스위스, 이스라엘 등 9개국이 광주시립미술관 등 9곳의 전시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올해 비엔날레 본전시 장소 역시 주전시장인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아트플랫폼에서 펼쳐져 파빌리온 프로젝트까지 더하면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광주 전역이 역동하는 동시대 미술 현장으로 변신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비엔날레가 2일권 입장권을 기획하는 등 ‘머물다 가는 축제’에 힘을 쏟고 있어 산재한 파빌리온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광주 도심 곳곳의 경관과 먹을거리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관광’ 트렌드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파빌리온 프로젝트에는 각국 주한 대사관 문화원(문화과)과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예술단체들이 참여했다.

스위스·이스라엘·프랑스·폴란드 등 9개국 ‘파빌리온 프로젝트’ 진행 시립미술관·이이남 스튜디오·동곡미술관·은암미술관 등 공간 활용

주한 스위스 대사관 문화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시대 문화예술기관 ‘프레머 프레임드’, 이스라엘 홀론의 디지털아트센터 ‘CDA Holon’(The Centre for Digital Art Holon),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중국 미술관, 캐나다 킨게이트에 위치한 이누이트협동조합 ‘웨스트 바핀 에스키모 코퍼레이티브’(West Baffin Eskimo Cooperative Limited), 폴란드의 ‘아담 미츠키에비치 문화원’(Adam Mickiewicz Institut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등이다.

재단은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공공 미술관, 대안 공간, 사립미술관 등 여러 공간을 해외 기관들과 매칭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외관계자들은 직접 장소를 방문, 자신들의 전시 컨셉과 맞는 공간을 확정했다.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곳은 광주시립미술관, 이이남 스튜디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동곡미술관, 은암미술관, 이강하미술관, 10년후그라운드, 양

림미술관, 갤러리 포도나무 등이다.

네덜란드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작품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선보이며 캐나다의 이강하미술관에서 에스키모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한다. 우크라이나는 인권·평화 관련 영상물과 전시를 포도나무 갤러리 등에서 펼쳐보일 예정이다.

재단 측은 파빌리온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는 워크숍, 출판,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광주지역의 네트워크 확장 및 협력을 통한 미술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행사 이후에도 양 측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지역 작가와 기획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20여곳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폴란드 작가들이 참여하는 양림동 10년후 그라운드.

‘신안, 바다와 삶’

김수진·정소영 레지던시 결과전, 31일까지 장산화이트뮤지엄

지난해 5월 문을 연 신안 장산화이트뮤지엄은 1962년 개교, 2008년 문을 닫은 장산 동분교장을 리모델링해 오픈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장작 레지던시를 장산화이트뮤지엄과 장산고택에서 진행했다.

신안군 국제장작 레지던시 결과전 ‘신안, 바다와 삶’이 오는 31일까지 장산화이트뮤지엄에서 열린다.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레지던시에 참여한 김수진·정소영 작가가 작품을 전시한다.

시각디자이너이자 페이퍼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김수진 작가는 레지던시 기간 동안 장산도를 비롯해 자은도, 압해도 등을 탐사하며 섬에서 찾은 요소들과 바다에서 느낀 감정들을 섞어 작품으로 표현했다. 마을에서 수집한 부표, 모래와 조개껍데기가 작품 재료로 사용됐다.

장산초등학교 학생 30명과 제작한 작품 ‘바다 위의 달빛’은 부표 위에 펄프 등을 이용해 제작한 작품으로 UV 손전등으로 비추면 자신들이 쓴 소원을 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중국 칭화대학교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상하이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을 꾸준히 제작해온 정소영 작가는 신안의 수선화 할머니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전시한다.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할머니가 섬으로 돌아와 텃밭에 꽃을 심고 가꾸어 섬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책상을 그대로 옮겨와 아이디어 스케치, 스케치 데미 등 작업 과정들을 볼 수 있다. 또 장산초 아이들과 작업한 ‘나, 우리 마을 장산’, 고마운 이웃들을 담은 팝업북도 전시한다. 정 작가는 덕성여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편 장산화이트뮤지엄에서는 ‘죽전서회 사제동행



김수진 작 ‘바다 위의 달빛’

전’도 오는 2월28일까지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ACC 입주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2월 5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3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올해 주제는 ‘들기의 미래’. 소리의 문화적, 지리학적 관계를 모티브로 새로운 청각 예술의 미래를 제시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시각예술을 비롯해 디자인, 매체예술(미디어아트), 다원예술, 기술, 과학, 인문·사회 등에서 8명(팀)이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창·제작 스튜디오(ACT스튜디오)의 기계조형과 디지털 에이브이 등 ACC의 기술 장비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매달 200만원의 창

작활동비 외에도 1500만원의 프로젝트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해외 참여자에게 항공료를 제공하며 역사 문화인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참여자는 6개월간 창·제작 과정을 거친 결과물은 오는 11월 초부터 3주간 창·제작 스튜디오에서 시범전시 형태로 선보인다.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정병국 전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시의회에서 정병국(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4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2026년 1월까지 3년.

신임 정병국 위원장은 5선(16대~20대) 국회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제45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청년 정치인의 육성과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정치학교 교장으로 활동해왔다.

정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활동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모금 중단 후 안정적인 자체



수입원이 없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겠다”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고루 향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식은 오는 16일 오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형 자본주의 인간의 성장담’

여수 출신 백시종 작가 ‘삼봉이 순자연대기’ 펴내

여수 출신 백시종 소설가(78)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와 대한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해 한국소설문학상, 오영수문학상, 황순원문학상양명문인상, 동리문학상, 이병주국제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저력있는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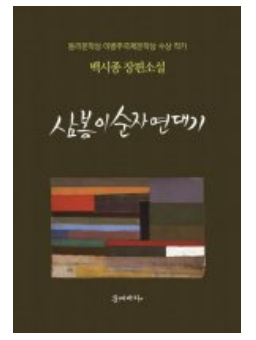
외국됐던 ‘여수사건’ 진실의 불씨를 지피고 싶어 지난 2020년 발간했던 장편 ‘여수의 눈물’은 어린시절 경험에 현장취재를 덧붙여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선사했다. 여수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광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젊은 시절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 신춘문예(66년)에 ‘지라지 않는 나무’로 문단에 나왔다.

그의 소설 쓰기는 성실성의 결과물이다. 지난 10년간 12권의 장편 소설을 발간할 만큼 치열하게 창작을 해오고 있다. 일상에 걸쳐 단 한편의 장편 소설을 못 쓰고 사라지는 작가가 부지수인 문단에서 10년간 한 해도 빠르지 않고 장편을 펴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백시종 작가가 최근 장편 ‘삼봉이 순자연대기’(문예바다·사진)를 펴내 눈길을 끈다.

이번 소설은 공정과 분배가 왜 이윤 배반의 문제인지에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문학이 돈에 대해 비속화했던 것에 반해 이번 작품은 고상한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문학평론가인 임정연 안양대 교수의 평대로 “그 고상한 문학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누추한 돈의 향방을 좇아 적진으로 투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흔히 말하는 ‘기난의 문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닌



‘돈의 문법’을 재구성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포섭된 ‘그들’의 존재를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점이 기존

의 작품들과 차별된다.

소설은 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안의 서삼봉과 어려운 환경 탓에 가발공장 여공으로 입사했지만 학벌열과 출세 욕이 높은 순자가 만나 펼쳐내는 ‘한국형 자본주의 인간의 성장담’이다. 모두 11부로 구성된 서사는 박정희 개발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며 자본이 사회를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포착한다.

또한 국내를 넘어 방글라데시까지 확장되는 이야기는 돈의 문법과 돈의 경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하게 주목한다. 작가가 젊은 시절 해외 출장을 다니며 경험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소설의 질료가 됐다.

백 작가는 “소설을 통해 공정과 분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앞으로 오래고 민해야 하고 또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대한민국이 밝고 건강해서 살기 좋은 터전이 되느냐, 그 반대로 미래가 없는 어두운 나라로 추락하느냐가 그 문제로 좌우된다고 믿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공연·전시·교육 소식 문자로 받아요

손에 잡히는 홍보 ‘ACC위클리’ 눈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각종 공연과 전시, 교육 관련 소식을 매주 금요일 휴대 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ACC위클리’가 손에 잡히는 홍보의 모델로 눈길을 끌고 있다.

ACC 위클리는 ACC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지원포럼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발송을 시작했다. 처음 200여 명에게 발송했으며 올해 4년째로 접어들면서 1200여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ACC위클리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공연과 전시 행사 가운데 빅이벤트가 되는 행사를 전당과 협의해 선정하고 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전달하고 있다. 1년에 52주가 발송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인원 6만여명에게 ACC문화행사 소식이 전해지는 셈이다.

이 문자 메시지는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장과 원하는 시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5회를 발송했으며 오는 2월 10일 200회가 발송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